

'시민 불편 해결사' 역할 특출

전주시,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출범 50일 만에 1000여건 현장 민원 발굴

전주시가 시민들의 일상 속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운영중인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 출범 50일 만에 1,000여 건의 현장 민원을 발굴해 조치하는 등 '시민 불편 해결사' 역할을 특출히 하고 있다.

시는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 50일을 맞아 그간의 활동 실적을 분석한 결과, 포트홀 선제 점검을 통한 민원 감소와 버스 승강장 관리 체계 개선 등 현장 중심의 행정 혁신을 이뤄낸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대표적으로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 이후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도로 위 흉기라 불리는 '포트홀'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다.

구체적으로 기동처리반은 겨울철 해빙기 이후 포트홀이 급증하는 시기를 고려해 지난달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주요 간선도로와 차량 통행량이 많은 구간을 중심으로 시 전역을 대상으로 포트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총 281건의 포트홀을 발견했으며, 이 가운데 94%에 달하는 264건을 즉시 보수 완료했다. 시는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도로 재포장 구간으로 검토해 정비를 진행하는 등 도로 안전 확보에 속도를 내



전주시는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 50일을 맞아 그간의 활동 실적을 분석한 결과, 포트홀 선제 점검을 통한 민원 감소와 버스 승강장 관리 체계 개선 등 현장 중심의 행정 혁신을 이뤄낸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고 있다. 이러한 '선제적 조치'는 실제 민원 감소로 이어졌다. 실제로 지난해 2월 766건에 달했던 국민신문고 포트홀 민원 접수 건수는 지난 2월 505건으로 1년 만에 약 34.1% 급감했다. 이는 민원이 들어오기 전 공무원이 먼저 현장을 누비며 위험 요소를 제거한 예방 행정의 대표적인 성과로 꼽힌다.

기동처리반은 또 시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버스 승강장에 대해서도 현장 밀착형 개선안을 끌어냈다.

기동처리반은 대중교통 이용 환경의 쾌적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달 3일부터 6일까지 전주시역 908개 버스승강장 중 96개소를 표본으로 정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현재 월 1회 실시되는 청소 주기만으로는 이용객이 많은 승강장의 위생과 쾌적성을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 확인됐으며, 특히 유동 인구가 많은 주요 정류장의 경우 생활 쓰레기와 먼지가 쉽게 쌓여 시민 불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기동처리반은 단순 해결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개선안을 관련 부서에 제안하기도 했다. 해당 내용은 이용객이 많은 승강장은 청소 주기를 월 4회 수준으로 확대하고, 공공근로 인력을 연계한 상시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 제안은 관련 부서 검토를 거쳐 승강장 관리 시스템에 즉시 적용돼 현재 시행되고 있다.

시는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 단순히 민원을 처리하는 수준을 넘어,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해 정책 제안까지 제공하는 '정책 피드백' 역할까지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기동처리반은 싱크홀 직후 및 가로등 기울어짐 등 지반 침하에 따른 안전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견하고, 불법 쓰레기 방치 외곽 지역 환경 정비,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연계 부서 합동 도로 청소 추진하는 등 현장 중심의 도시 미관 개선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민원 접수 후 대응하는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공무원이 먼저 현장을 확인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기동처리반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포트홀, 승강장과 같이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민 불편 제로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행위 주의해야”

전주시, 지난 4년간 단속으로 1만5078건 적발... 해마다 지속 증가

전주지역에서 전기차 충전구역에 불법 주차하는 행위가 꾸준히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주시는 지난 4년간 '환경친화적차량'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주차 및 충전 방해 행위건수의 추이를 분석한 결과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건수가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22년 5월 1일부터 충전구역 불법주차 및 충전 방해행위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 있다. 전기차 충전시설의 충전 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한 경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증거 사진을 첨부해 신고하면 시에서 현장 조사 등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시가 단속 건수를 분석한 결과 공영주차장과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등에 설치된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및 충전 방해행위가 신고 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되는

불법행위는 주로 불법주차 및 충전 시간 초과가 대부분으로, 시는 올해 3월 기준으로 총 1743건을 적발해 1억290만444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매년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증가하면서 해마다 단속건수 및 과태료 부과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지난 2022년 1526건(과태료 5877만2500원)이었던 단속 및 과태료 부과건수는 2023년 2993건(2억936만9900원)과 2024년 4100건(2억1806만8600원), 지난해 4716건(2억7955만3520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한편 지난달 5일부터 전기차 충전구역 내 과태료 요건이 500세대에서 100세대 미만의 아파트로 개정됐으며,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충전구역 내 주차 가능 시간이 기존 14시간에서 7시간으로 개정(00시~06시 산정 제외)됐다. 또, 충전 여부와 관계없이 주차한 시점으로부터 전기자동차는 14시간까지 주차가 가능하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

진북동 재개발 시공사인 보광종합건설 본사 방문 간담회·협약 체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힘써온 전주시의 노력으로 전주지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지역건설업체 참여 기회가 넓어지게 됐다.

시는 24일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보광종합건설(주) 본사를 방문해 지역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및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보광종합건설(주)는 진북동에 10개동, 지상 20층 총 654세대 규모의 공동주택(골드클래스 시그니처) 신축공사 시공을 맡고 있으며, 이날 간담회는 전주시 관계자 7명과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관계자 1명, 동양아파트 인근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관계자 1명, 보광종합건설(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대규모 재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건설산



업체의 실질적인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을 극대화하는 방법과 공사 중 발생하는 민원 대응 방안 등을 함께 논의했다.

또한 시는 보광종합건설(주)과 지역 전문건설업체 60% 이상의 하도급 참여 △공사 중 발생하는 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응 △관련 인허가 사항의 신속한 처리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근절 등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권희성 기자

청년만원주택 '청춘★별채' 예비입주자 모집

전주시, 30일~4월 1일 접수... 24호 대상 예비입주자 3배수 선정

전주시가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청년만원주택인 '청춘★별채'를 추가 공급한다.

시는 오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3일 동안 평화동에 신축한 청년만원주택 '청춘★별채'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청춘★별채'는 높은 주거비와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월 임대료 1만 원 수준의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전주시 청년 주거지원 정책을,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번 모집 대상 주택은 완산구 모악로 4685-22(평화동)에 위치한 청춘★별채 24호로, 2룸 21호와 1룸 3호로 구성돼 있다.

시는 선순위자 계약 포기 등에 대비해 총 72명의 예비입주자를 선정(3배수)할 계획으로, 선정된 예비입주자는 순번에 따라 공실 발생 시 순차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지난 19일이며, 이는 입주 자격 판단의 기준일이 된다.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3일간 전주시 누리집(www.jonju.go.kr)의 '통합신청지원'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입주 자격은 공고일 기준 무주택 미혼 청년으로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대학생 △졸업 후 2년 이내 취업준비생이 해당된다.

공급 유형은 우선 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뉘며, 우선 공급은 △아동복지

시설 또는 청소년쉼터 퇴소 청년 △전세사기피해자(긴급지원대상자에 한함) 청년을 대상으로 일부 물량이 배정된다.

일반공급은 공공주택 입주자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따라 1~3순위로 나눠 입주자를 선정한다.

임대 조건은 보증금 50만 원에 월 임대료 1만 원(방 수 기준) 수준이며, 최초 2년 계약 후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2년 단위로 재계약에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또한 입주자가 거주 중 혼인할 경우 최대 20년까지 거주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청년들의 장기적인 주거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에 공급되는 '청춘★별채'는 1인 청년의 주거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10평형(약 33㎡) 위주로 설계돼 실용성과 쾌적성을 동시에 확보했

다. 뿐만 아니라 개별 호실마다 냉방기와 세탁기, 에어컨, 전기밥솥 등 주요 생활가전이 기본 옵션으로 설치돼 공간 효율을 극대화했으며, 이를 통해 입주 시 가전 구매에 따른 초기 비용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여기에 시는 단순 주거공급을 넘어 청년 입주자들의 연대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설계했으며, 청년들의 공동체 형성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소득·자산 등 입주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오는 6월 중 예비입주자 순번을 발표할 후 순차적으로 계약과 입주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은주 전주시 인구청년정책국장은 "청춘★별채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전주시 대표 청년 주거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http://council.jinan.go.kr

군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 제9대 진안군의회 | 군민과 함께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진안군의회!

진안군의회

http://council.jinan.go.kr